

# '하늘법당'에 과일이 주렁주렁

### 영남불교대, 유치원 옥상에 생태공원 조성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6월 19일 '참 좋은 유치원' 옥상에 자연생태공원 '하늘법당'을 개원했다. '하늘법당'은 내년에 문을 여는 '참 좋은 유치원' 원아들이 유기농법을 배울 수 있는 생태체험의 장으로 활용된다.

"스님, 스님, 이걸 뭐예요? 이게 감자예요? 우와 이걸 팔기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난다.

포도나무엔 작은 포도송이가 조롱조롱 매달려 있고, 딸기밭엔 딸기도 열렸다. 한 달 후엔 연못에서 홍련과 백련, 수련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활짝 피어날 것이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사회주 우학)가 내년에 개원하는 '참 좋은 유치원' 옥상에 약 300평 규모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6월 19일 개장했다. 유치원과 나란히 있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옥상에는 약 200평 규모의 전통문화체험장도 마련했다. 또, 건물을 연결하는 작은 통로 위에는 2m 80cm의 와불을 조성해 점안했다.

영남불교대학은 대구의 앞산과 팔공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 전통문화체험장도 마련 옛 선조 생필품 전시 눈길 "아이들 정서에 도움될 것"

옥상에 봉안된 대형 옥의 부처님이 내려다 보는 이곳을 '하늘법당'이라고 부른다.

천상의 동자들이 풍요롭게 뛰어노는 행화가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원두막도 있다. 원두막은 도솔천궁이라 이름 붙였다. 도솔천궁 옆에는 작은 연못도 있는데 물레방아가 쉽 없이 돌고, 다양한 연꽃과 물속식물이 자란다. 그 외 채소단지, 곡물단지, 야생화단지, 화훼단지 등이 군락을 이뤄 조성돼 있고, 예쁜 동물원에는 토끼, 다람쥐, 모란앵무 등이 살고 있다.

이날 하늘법당을 찾은 300여명은 어느새 중심으로 들어가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보고, 전통문화체험을 즐겼다.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어린시절 고향을 그리며 향수에 젖어들었다. 어느새 입가엔 미소가 피어오르고, 각박한 삶의 흔적이 사라졌다. "어머! 이거 케일이잖아. 근데 별레가 먹었네. 진짜 무궁해야."

전통문화체험장에서는 전통혼례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가마를 타보기도 하고 굴렁쇠를 굴러보기도 했다. 굴렁쇠는 생각만큼 쉽게 굴러지지 않았는데, 우학 스님이 시범을 보이는 통에 신도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또, 탁본체험도 재밌다. 그러나 뭉니뭉니해도 아이들은 후호놀이(후호)를 단단히 붙였다. 전통문화체험장 한켠엔 옛 선조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과 함께 지혜가 담긴 생필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다.

우학 스님은 "고구마, 감자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한 우리음식을 가르쳐주고, 옛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고향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연생태공원과 전통문화체험장을 조성했다"며 "전국 도심 아파트 옥상마다 이런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정서함양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생태공원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유기농법으로 직접 가꾸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또, 전통문화체험장 역시 단순 전시공간의 개념을 떠나 어린이들이 전통혼례복도 입어보고 도자기도 만들어 보고 전통놀이를 하면서 살아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 (053)474-8228

글·사진=배지선 기자

### 지하철안전운행기원 법회 풍경소리 대구경북지구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구경북지구(지부장 류병규)는 창립 3주년을 맞아 6월 17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지하철안전운행기원법회를 열었다(사진).

대구지하철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과 대구경북풍경소리 지도위원장 동화사 강주 지은 스님,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 하재웅 회장, 대구지하철공사 안전관리공단 나시경 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법회에 이어 동화사일주문 앞 분수대 야외무대에서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마당놀이를 비롯한 대구경북풍경소리의 창립3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의 감사장이 풍경소리에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해자 스님은 이용성 사무총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대구경북 풍경소리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처님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구경북풍경소리 운영위원회 김길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포교단체 풍경소리는 현대인의 인간정신을 진신한 등불로 밝혀주는 지역포교의 선구자라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 '1391'이 해결해 드려요

###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파트너"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층 구미 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법현)에 '1391' 전화가 울렸다.

어린이 성학대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주민의 전화다. 3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가 성학대를 당했는데 피해아동 아버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 하룻밤 집에 묵게 해 줬는데 일이 벌어졌다. 구미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법현 스님은 상담원 4명과 사회회의를 열

조치하며, 아동심리검사와 치료, 가해자 심리검사와 치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

2005년 1월에 개소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사례관리 외에 교육, 홍보, 아동보호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부지불식간에 아동학대가 종종 일어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방 연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

지난 5월에는 대구 MBC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을 펼쳤고, 구미시내에서 행복한 가족 사진

###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와 예방사업 전개 방송 기업 연계 '행복한 가정만들기' 캠페인도

고 담당 상담원을 배치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피해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있어 2차 가해의 위험이 없고,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아동이 정신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성심리검사를 비롯한 소아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24조에 의거해 설치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9개 기관중 유일하게 불교계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핫라인 전화 1391을 열어놓고 대기중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한 경우는 12시간 내에 아니면 24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판정 후 경고, 격려, 고발

을 찍어주며 홍보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젝트도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법현 스님은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동들을 무의식적인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학대도 있지만 감금하거나 언어적인 위협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는 물론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유기와 방임도 포함된다"며, "미래의 인재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를 목격했을 때는 신고전화1391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 영상 보며 들으니 더욱 재밌어요

### 신라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재학교' 인기 만점



(사)신라문화원이 2인1조의 방문 교사단을 요청하는 학교에 파견해 어린이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방문학습을 하는 문화재학교(사진)를 열어 화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문화재학교는 건국신화, 불

국사, 문무왕과 감은사지, 능묘구조와 유물이야기, 신라의 화랑과 충신 이야기 등의 6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초등학교 2, 4, 6학년 토요교과가 실시되고 재량학습, 체험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문화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방문학교가 늘고 반응도 좋은만큼 2학기에는 방문학교를 경주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방학기간에는 현장 답사까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54)774-1950

배지선 기자

## 직접 느껴보아야 잘 가르쳐요

### 템플스테이 운영실무자 교육



템플스테이 운영실무자 신규 실무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김철 작지사에서 6월 20~21일 열렸다. 템플스테이 운영실무자들이 직접 템플스테이를 체험함으로써 사

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템플스테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2006년 신규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을 비롯한 14개 사찰에서 총 17명의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입재시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상견례를 시작으로 발우공양과 예불, 산행, 차담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이 각 돌아가 프로그램에 응용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체험시간(사진)을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사무국측은 "같은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배지선 기자

# 표충사 2006년 여름 템플스테이

주제 : 물처럼 맑고 바람처럼 시원하게

차수	일 정	기 간	동참금
1차	7월 9일~10일	1박2일	30,000
2차	7월 15일~16일	1박2일	경남문인협 150명
3차	7월 22일~23일	1박2일	30,000
4차	7월 28일~30일	2박3일	60,000
5차	8월 5일~6일	1박2일	30,000
6차	8월 11일~13일	2박3일	60,000
7차	8월 19일~20일	1박2일	30,000
8차	8월 26일~27일	1박2일	30,000

- 접수방법 : 표충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접수처
- 접 수 처 : 표충사 증무소
- 문 의 : 전화 055-352-1070, 1150 / 팩스 055-352-1836
- 홈페이지 : http://www.pyochungsa.or.kr
- 입금방법 : 농협 811079-51-011960(예금주: 표충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운동화(간편한 복장), 우산

###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사명대사 호국성지 표충사

## 제19회 여름 전국 어린이·청소년 참선명상 수련대회

시원한 바닷가에서 참선과 수련을...



어린이·청소년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여름 방학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에 앉아 파도치는 소리에 동화되어 참선명상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참선명상으로 지혜를 증강시키고 심성개발을 하여 정신집중력을 기르며 풍부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며 동심을 키우고 꿈과 희망 속에서 참나를 찾고 나의 부처님을 만나요.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배우고 또 몸소 실천하는 생활은 소중한 보람되며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20년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에서는 바다와 함께하는 참선명상으로 알차고 보람있는 수련대회가 되도록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방학동안 학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며 집중력 또한 떨어집니다. 수련회는 산만한 어린이·청소년에게 집중력을 길러주며 성격향상과 성격개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연 제 : 불기 2550년 7월 27일 ~ 7월 31일(4박 5일)
- ◆장 소 : 강원도 강릉 등명해수욕장 수련원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인 원 : 40명 ◆회 비 : 90,000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영복, 수경, 샌들, 물놀이구, 구급약, 수건(여러장), 여벌옷(속옷포함), 양말(여러켢레), 쌀 1되, 등
- ◆접 수 : 7월 20일까지 마감
- ◆신 청 서 : www.dongsansa.org / www.ggachimaul.org
- ◆문 의 처 : ☎ 031)998-8700 / 011)763-1080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12-01-0134-991 (까치마을)

※ 접수 후 입금을 하셔야 신청이 됩니다.(신청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녀들의 유의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은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7일 오전 8시에 지하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총장 보회 합장